

'투트랙 프로젝트'와 문해력

교육의향

강경필

광주교육연구소 이사



녹음이지만 이 버전에서 가사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에 최정훈은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할 정도로 가사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전달하려 애쓴다.

이런 양상은 비단 한 곡에서 끝나지 않는다. 작사가인 조동희가 직접 부른 '거울 속의 사람'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조동희가 부른 버전에서는 잘 전달되지 않았던 가사의 의미가 너드커넥션의 서영주가 부른 버전에서는 오히려 잘 드러난다.

예술이 한 사회를 증후적으로 보여준다는 가정 아래 이 프로젝트 안에서 감지되는 차이를 확장하면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말에 더 집착한다 볼 수 있다. 이것은 썩 전반적인 발견이다. 그동안 젊은 세대가 문해력이 떨어지고, 난독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도처에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말을 축약, 분절시키고, 외계어를 사용하고, 이모티콘을 난발하는 새로운 세대는 말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격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투트랙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젊은 가수들의 '가사집착'이 자못 전복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세대를 향한 공격들을 내심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청소년 시기부터 혹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한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접한 영상과 이미지 때문에 기존 매체인 문자나

말의 사용에 더 무디고 무능력하다고 막연하게 말하고 재단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는 과거의 미디어를 포괄한다. 스마트폰은 문자와 음성이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해력에 스마트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오히려 문해력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혹은 문해력의 구성요소가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 변동 속에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낀다. 소통이 단절된다고 느낄 수 있다. 모두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데,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함이 곧 문제는 아니다.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문화에 익숙한 세상에서 누군가 혼자 책을 읽으러 들어간다면 어색했겠지만, 이미 읽는 개인이 대중화된 세상에서는 읽는 것이 장려된다. 지금은 미디어가 급변하는 세상이라서 아직 혼동 속에 있다. 하지만 헛갈린다고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쉽게 낙인찍을 수는 없다. 배움이 필요한 대상은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다. 전적으로 낯선 것 속에서 긍정성을 찾아내는 것이 배움이라면, 이제 젊은 세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평을 줄이는 것이 기성세대에게 요구되는 배움이다.

한 곡을 두 가수가 각각 불러 녹음한 '투트랙 프로젝트'가 올해 초 완성되어 발매되었다. 한국음악사의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낸 밴드 '어떤 날'의 조동익이 작곡하고, 그의 동생이자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의 작사가 조동희가 작사를 한 8곡을 16명의 가수가 불렀다. 16명의 가수를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그룹은 40~60대 가수들로 열거하자면 한영애, 장필순, 윤도현, 이승열, 조동희, 성시경, 이효리, 정인이고, 다른 한 그룹은 20~30대로 최정훈, 정승환, 백아, 스탠라장, 서영주, 치즈, 정세운, 하현상이다.

음반을 쪽 들어보면 뚜렷하게 감지되는 두 그룹의 차이가 있다. 가사를 전달하는 양상이 다르다. 젊은 가수들은 꼭꼭 씹어 집착하듯 가사를 소화한다. 반면에 중견 가수들은 자신의 소리가 더 중요하고 가사에 덜 집착한다.

한영애와 최정훈이 부른 '사랑을 사랑하게 될때까지'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영애의 매력이 잘 도드라지는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대한 레바논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AP/뉴시스

신뢰 없고 무관심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社說

외연확장 쓴소리 새겨 들어야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순회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의 민주당은 절대 외연을 확장할 수 없고, 그 결론은 결국 패배'라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경선이 후반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경선에 대한 소회일 것이다. 행사장을 찾은 일부 당원들은 야유를 보냈지만 김 후보의 지적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김 후보는 광주와 전남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친명 인사들이 주축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대며 저격했다. 광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비명계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차기 대선 주자로 키우자고 했다.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던 만큼 예선전인 차기 지방선거에서 연대와 연합으로 승리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 대회를 앞두고 이개호 선관위원장장은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국당원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경선은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가겠다는 다짐과 거리가 멀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놓고도 '추대로 선출하지 왜 전국을 순회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껏해야 30% 안팎에 머무른 온라인투표율도 축제로 치러져야 할 당원대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상이 된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일방통행 타일 게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후 지금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전당대회도 무관심 일색이다.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진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중도층이 사라지고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례서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외연이 넓어져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당심과 민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김두관 후보의 말에 민주당의 살 길이 담겨있다.

광주시·전남대, 이차전지 협약 환영한다

성공 위해 정부 적극 지원해야

광주시에 전남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이차전지 분야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지난 2일에는 이들 기관과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고 전자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이 의지를 갖고 인재육성에 나서고, 자치단체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광주가 가진 첨단전략산업의 미래는 밝다. 창의와 혁신으로 광주가 이차전지의 글로벌 메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로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갈 고성능 대표 신산업이다. 중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 속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결합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전가차 시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중요하다. 이차전지는 차량의 안전은 물론이고 주행 거리와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인센티브 등도 다양하다. 그렇다고 이차전지 산업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숙제를 광주시와 전남대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대가 4년 간 국비 120억 원을 투입하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을 선정한 것은 차세대 전기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차전지 융합전공 학과를 개설하고 기반시설과 우수교원 등을 확보해 기업 연계형 실습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이차전지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광주와 전남대의 중요한 도전이다.

이차전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광주시와 전남대는 광주의 첨단전략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미 다가온 탄소중립 시대, 갈수록 커지는 이차전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정부에 주어진 역할은 분명하다.

서석대



가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금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논의가 특검으로 좁혀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말 재난 실종자 구조작전에 나섰던 한 군인의 죽음이 정쟁의 소재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책임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채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수많은 재난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기 일췌였다. 10년 전 2014년 세월호 참사부터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참사까지.

더 이상 국가는 모든 재난을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영위할 정쟁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컨트롤 시스템의 부재와 이후 대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등 유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재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곧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김은지 취재2부 기자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 명시했다. 그중에서도 생명 보호가 일차적이다.

단순히 자연재해, 전쟁으로부터만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키는 것도 국가의 책임인 것이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 제69조가 명시된 취임서를 낭독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대통령직 수행의 근간인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서부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대통령의 책무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지난달 15일은 채상병 사망 1주기였다. 그의 죽음은 일 년 사이 정쟁의 중심에 있었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초점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는

국가 존재의 이유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진실보도 실천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지역개발 선도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